
2022년 중 금융·외환시장 동향

I. 개황

II. 금융시장

III. 외환시장

I. 개황

2022년 중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PF-ABCP 시장 불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 정책금리의 인상 등으로 상승하였다. 6월 하순 이후에는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9월 영국 금융시장 불안, 10월 국내 단기금융 및 신용채권 시장 불안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11월 하순 이후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 대책,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에 따른 신용경계감 확산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미 연준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일시 상승하였다가 10월 이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에 따른 시장불안,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 우려, 미·중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은행 수신은 금리상승으로 정기예금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입출식예금이 줄어들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대출규제 강화, 금리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기업 자금조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회사채 시장 불안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둔화되었으나 은행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중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고인플레이션 지속 및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외환수급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 등으로 외환 순유출로 전환되었고, 대외채무는 늘어난 가운데 대외채권이 감소한 데 따라 순대외채권은 상당폭 감소하였다.

II. 금융시장

1. 금리

2022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긴축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2021년 말 1.80%→2022년말 3.72%)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연초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대규모 추경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하다가 3월 중순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미 연준 등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6월 하순 이후에는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및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8월 들어 미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9월 이후에는 영국 금융시장 불안, 10월 국내 PF-ABCP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연중 최고 수준(3년물 9.26일 4.55%, 10년물 10.21일 4.63%)까지 급등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¹⁾,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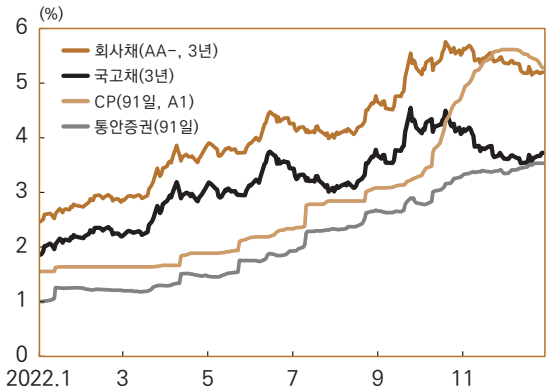
1)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및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CP 매입프로그램 확대 등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10월 23일)하였다. 한국은행은 금통위 의결(10월 27일)을 거쳐 대출 적격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확대, 차액결제 담보증권비율 인상 유예, 한시적 RP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11월 1일)하였다.

회사채(3년)금리도 연중 큰 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를 보면 상반기 중 금리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확대되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신용경계감 증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선호 강화, 한전채·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신용채권간 구축효과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9월말 이후에는 PF-ABCP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 시장안정화 조치와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에 힘입어 11월말 들어 축소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다. CP(91일, A1등급) 금리는 9월까지 기준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10월 들어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²⁾의 영향으로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면서 급등하였다.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다가 12월 이후 하락 전환하였다.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2022년 12월 중 여신금리는 5.56%로 2021년 12월(3.25%)에 비해 2.31%p 상승하였다.³⁾ 수신금리는 4.22%로 2021년 12월(1.70%)에 비해 2.52%p 상승하였다.

〈그림 1〉 주요 시장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표 1〉 주요 금리

(기말기준, %, %p)

	2021		2022		
	12월	3월	6월	9월	12월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회사채(3년, AA-) ¹⁾	2.41	3.33	4.36	5.28	5.20
회사채(3년, A-) ¹⁾	3.28	4.20	5.24	6.16	6.19
통안증권(91일) ¹⁾	1.00	1.29	1.89	2.80	3.53
CP(91일)	1.56	1.66	2.34	3.30	5.28
은행 여신금리 ²⁾	3.25	3.50	3.90	4.71	5.56
은행 수신금리 ²⁾	1.70	1.74	2.41	3.38	4.22

주: 1) 민간채권평가사 평균
2) 기간중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2) 강원도가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동 공사의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아이원제일차 PF-ABCP 2,050억원이 미상환(9월 29일)되었다. 레고랜드 PF-ABCP는 강원도의 지급 약정을 기반으로 A1 등급으로 발행되었으나, 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신용등급도 잇달아 강등(9월 30일 C등급 → 10월 4일 D등급)되면서 최종 부도 처리(10월 5일)되었다.

3) 여신종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가 2.42%p, 가계대출금리는 1.94%p 상승하였다.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 등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우대금리 인상),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안전전환대출 취급 등에 영향받아 기업대출금리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2. 주가

2022년 중 코스피는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기인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내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7월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9월 중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재차 하락하여 연저점(9.30일, 2,155)을 기록하였다. 10월 중 영국 정부의 감세안 일부 철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였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우려, 미·중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전년 말 대비 24.9% 하락한 2,236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며 하락하였다.



한편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모두 전년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표 2> 주가지수 및 주식거래규모

(기간중 일평균, 조원)

	2021		2022			
	연중	연중	1/4	2/4	3/4	4/4
코스피						
지수 ¹⁾	2,978	2,236	2,758	2,333	2,155	2,236
거래대금	15.4	9.0	11.1	9.8	7.6	7.7
코스닥						
지수 ¹⁾	1,034	679	945	745	673	679
거래대금	11.9	6.9	8.7	7.4	6.3	5.3

주: 1) 기말 기준
자료: KOSCOM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투자자는 연중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4/4분기 들어 경기둔화 우려, 국내 주요기업 실적부진 전망 등의 영향으로 순매도로 전환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 신흥국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순매도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들어 중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자금의 국내유입, 반도체·2차전지 업황개선 기대에 힘입어 순매수로 전환하였다.

<표 3> 투자주체별 주식순매수¹⁾

(조원)

	2021		2022			
	연중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26.0	-11.0	-7.6	-12.2	3.3	5.5
개인	76.8	25.3	14.2	13.6	3.4	-5.9
기관투자자	-44.0	-13.6	-6.6	-1.5	-5.8	0.3
(증권사)	2.7	0.9	-2.8	1.3	-1.0	3.4
(연기금 등)	-23.8	-2.5	-0.5	0.1	-1.0	-1.1

주: 1) 코스피+코스닥 기준
자료: KOSCOM

3. 금융기관 수신

2022년 중 은행 수신은 2021년보다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금리인상에 따른 정기예금으로의 자금 이동 등으로 큰 폭 감소

하였다. 정기예금은 LCR 등 규제비용 준수를 위한 은행의 예금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021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MMF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는 주가 하락, 대내외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기타펀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표 4〉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중 증감, 조원)

	2021		2022			
	연중	연중	1/4	2/4	3/4	4/4
은행	198.5	107.4	16.6	57.8	34.9	-1.9
수시입출식 ¹⁾	131.0	-104.9	6.7	12.6	-72.0	-52.2
정기예금	41.8	200.1	13.3	32.7	85.3	68.8
단기시장성 ²⁾	17.6	4.7	2.7	4.0	6.2	-8.2
은행채	16.3	8.9	-5.1	6.5	13.1	-5.6
자산운용사	93.9	44.4	33.8	-1.2	3.1	8.7
주식형펀드	18.2	-4.6	0.3	-4.1	-0.4	-0.4
채권형펀드	13.0	-11.1	0.0	-2.9	-1.6	-6.6
M M F	9.6	16.0	17.5	-6.8	-4.1	9.4
기타펀드 ³⁾	45.1	48.0	14.4	14.0	11.4	8.2

주: 1)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2) CD, RP, 표지어음 기준
 3)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기준
 자료: KOSCOM

4. 가계대출

2022년 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6조원 감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대출금리 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2/4분기에는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이 강화되면서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정부의 가

계대출규제⁴⁾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중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시행⁵⁾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감소,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의 경우 DSR 규제,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표 5〉 은행 가계대출 관련 지표 추이

(기간중 증감, 조원)

	2021		2022			
	연중	연중	1/4	2/4	3/4	4/4
가계대출 ¹⁾²⁾	71.8	-2.6	-1.7	1.8	-1.3	-1.4
(주택담보대출 ²⁾)	56.9	20.0	6.0	4.3	4.5	5.3
(기타대출)	14.7	-22.9	-7.7	-2.6	-5.7	-6.8
가계대출 연체율 ³⁾	0.20	0.20	0.18	0.19	0.20	0.23

주: 1) 신탁대출 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기간중 평균, 분기말월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편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반기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5. 기업의 자금조달

2022년 중 기업의 자금조달은 회사채 발행 위축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확대되었다.

은행 기업대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등에 따른 대기업의 대출 활용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되었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가 신용스프레드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수요 위축 등으

4)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2021.10.26)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3단계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5) 3차 안심전환대출 실행으로 2022년 9~12월 중 기존의 비은행권에서 취급한 대출 일부가 은행 대출로 대환되었다.

로 순상환된 반면, CP·단기사채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자금조달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확대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표 6〉 기업자금조달 관련 지표 추이

(기간중 증감, 조원, %)

	2021		2022			
	연중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¹⁾	89.3	104.6	28.2	31.3	30.3	14.9
(대기업)	7.5	37.6	5.7	9.3	12.9	9.7
(중소기업)	81.8	67.1	22.5	22.0	17.3	5.2
직접금융	49.2	39.4	26.8	3.0	3.8	5.7
(회사채순발행) ²⁾	16.2	-5.9	2.2	-2.5	-1.8	-3.7
(CP·단기사채순발행) ³⁾	4.1	23.5	10.8	0.5	4.4	7.9
(주식발행) ⁴⁾	28.9	21.7	13.8	5.1	1.3	1.6
기업대출 연체율 ⁵⁾	0.37	0.27	0.29	0.28	0.25	0.27
(대기업대출) ⁵⁾	0.33	0.16	0.23	0.20	0.13	0.07
(중소기업대출) ⁵⁾	0.38	0.30	0.31	0.29	0.28	0.32

주: 1) 신탁대출 포함
 2) 공모 회사채 기준(ABS 제외, P-CBO 포함)
 3) 일반기업 기준
 4)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합계
 5) 기간중 월평균, 분기말월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6. 통화

2022년 중 통화증가율은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M1 증가율은 금리인상에 따른 수시입출식예금 감소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M2 증가율의 경우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둔화되면서 2021년 11.7%에서 2022년 8.3%로 하락하였다. Lf 증가율도 9.8%에서 7.3%로 낮아졌다.

〈표 7〉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평잔 기준, %)

	2021	2022				
		연중 ^p	1/4	2/4	3/4	4/4 ^p
본원통화	16.3	10.2	13.0	12.0	10.8	5.3
M1	21.0	4.0	12.4	8.7	2.4	-6.4
M2	11.7	8.3	11.8	9.2	7.2	5.2
Lf	9.8	7.3	9.9	8.0	6.5	5.0

자료: 한국은행

III. 외환시장

1. 환율

원/달러 환율은 1~2월 중 1,200원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로 미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인 데 영향받으며 10월에 1,44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그동안 시장 예상을 상회하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미 연준이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1,260원대까지 빠르게 하락하였다. 2022년 말 원/달러 환율은 1,264.5원으로 2021년 말(1,188.8원) 대비 6.0% 절하되었다.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BIS 기준)는 미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교역비중이 큰 중국 및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안화 및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2년 말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2021년 말(97.39) 대비 0.9% 상승한 98.23을 기록하였다.

〈그림 3〉 환율 추이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증가,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BIS 발표 기준

〈표 8〉 주요국 통화의 변화율¹⁾²⁾

	2020년중	2021년중	2022년중
한국 원화	6.5	-8.6	-6.0
일본 엔화	5.6	-10.2	-13.9
유로화	9.0	-6.9	-5.9
중국 위안화	7.0	2.4	-8.2
영국 파운드화	3.2	-1.1	-10.5
캐나다 달러화	2.1	0.1	-6.8
호주 달러화	10.4	-6.1	-6.4
대만 달러화	6.4	1.5	-9.9
싱가포르 달러화	1.6	-1.9	-0.7

주: 1)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강세(+), 약세(-)]
 2) 원화는 서울외환시장 증가, 엔화는 Reuters 고시 동경시장 15:30, 유로화-영국 통화는 Reuters 고시 뉴욕시장 16:30, 중국-호주-대만 및 싱가포르 통화는 Bloomberg 고시 동경시장 20:00, 캐나다 통화는 Bloomberg 고시 뉴욕시장 17:00 기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전일대비 변동률 및 일 중 변동률 모두 전년(2021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표 9〉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¹⁾

	2021	2022				
		연중	1/4	2/4	3/4	4/4
전일대비 변동폭	3.6	6.5	4.3	5.9	6.7	9.2
변동률 ²⁾	0.32	0.50	0.35	0.46	0.49	0.67
일 중 변동폭	5.2	8.4	5.1	7.0	8.6	12.6
변동률 ³⁾	0.45	0.64	0.42	0.55	0.64	0.93

주: 1) 기간중 평균
 2) [(금일 증가 - 전일 증가)/전일 증가] × 100
 3) [(일중 최고가 - 일중 최저가)/당일 평균 환율] × 100
 자료: 한국은행

2. 외환거래 규모

2022년 중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296.1억달러로 전년(268.7억달러)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 외환스왑 거래 증가에 기인하였다.

〈표 10〉 은행간 외환거래¹⁾ 규모 추이

	2021	2022				
		연중	1/4	2/4	3/4	4/4
현물환	104.6	108.1	113.0	122.0	99.1	98.5
(원/달러)	85.4	90.4	93.4	106.6	85.4	76.6
(원/위안)	19.2	17.6	19.6	15.4	13.8	21.9
선물환	5.2	6.0	3.0	3.2	8.5	9.2
외환스왑	133.0	152.0	148.4	162.9	158.4	138.0
기타파생상품 ²⁾	25.9	30.0	30.8	32.6	29.7	27.0
합 계	268.7	296.1	295.2	320.7	295.7	272.7

주: 1) 기간중 일평균, 외국환중개회사 경우 거래 기준
 2)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자료: 한국은행

3. 외환수급

2022년 중 국제수지상 외환수급은 -369억 달러의 순유출로 전환⁶⁾되었다. 이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

6) 2017년(-50억달러) 이후 5년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7) 상품수입이 큰 폭 확대(2021년 5,737억 달러 → 2022년 6,754억 달러)되면서 전체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었다.(2021년 757억 달러 → 2022년 151억 달러)

으로 수입액이 크게 증가⁷⁾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 데다 금융계정의 순유출 규모가 소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금융계정을 항목별로 보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줄어들면서 직접투자 순유출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증권투자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 등으로 상황변화에 민감한 외국인 국내투자가 거주자 해외투자에 비해 더 크게 축소되면서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기타투자는 단기 무역신용자산, 비금융기업의 현금 및 예금 감소 등으로 순유입 전환하였다.

한편 2022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232억 달러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 대비 400억 달러 감소하였다.

〈표 11〉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2021	2022 ^p				
		연중	1/4	2/4	3/4	4/4
경상수지	852	298	149	100	9	41
금융계정 ¹⁾	-636	-667	-179	-193	-185	-109
직접투자	-439	-484	-165	-131	-105	-83
증권투자	-194	-254	-73	-173	41	-49
파생상품	1	-76	-4	-21	-24	-27
기타투자 ²⁾	-4	147	63	131	-97	50
자본수지	-2	0	0	0	1	-1
외환수급 ³⁾	214	-369	-30	-94	-176	-70
외환보유액 ⁴⁾	4,631	4,232	4,578	4,383	4,168	4,232
(증감액)	200	-400	-53	-195	-215	64

주: 1) "+"는 외환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자산감소(회수)와 부채증가(조달)는 유입요인, 자산증가(운용)와 부채감소(상환)는 유출요인)

2) 예금(예수금) 및 대출(차입) 등

3) 경상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의 합

4) 기말 잔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4. 외채

2022년 말 현재 대외채무는 6,645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321억 달러 증가하였다. 만기별로는 장기외채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및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등으로 30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는 20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5.1%로 2021년 말 대비 1.0%p 하락하였다. 한편,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39.4%로 외환보유액이 상당폭 감소하면서 2021년 말에 비해 3.8%p 상승하였다.

대외채권은 10,257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547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보유액 및 기타부분 대외채권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612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868억 달러 감소하였다.

〈표 12〉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추이

(억달러, %, %p)

	20년말	21년말 ^p (C)	22년말 ^p (D)	증감 (D-C)
대외채무 (A)	5,506	6,324	6,645	321
장기외채 ¹⁾	3,906	4,677	4,978	301
단기외채 ¹⁾	1,601	1,647	1,667	20
(대외채무대비 단기외채비중)	29.1	26.0	25.1	-1.0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36.1	35.6	39.4	3.8
대외채권 (B)	10,344	10,803	10,257	-547
순대외채권(B-A)	4,838	4,479	3,612	-868

주: 1) 장기외채는 계약만기 1년 초과, 단기외채는 계약만기 1년 이하 대외채무

5. 대외 외화조달여건

대외 외화조달여건은 연중 상당폭 악화되다가 11월 이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은 미 연준의 긴축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 다만 11월 중 연중 고점을 기록한 이후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기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하였다. 12월말에는 전년 말(21bp) 대비 34bp 상승한 55bp를 기록하였다.

준(準)정부 및 민간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가산금리도 CDS프리미엄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 11월까지 상당폭 상승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12월 말에는 전년 말(53bp) 대비 52bp 상승한 104bp를 기록하였다.

〈그림 4〉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¹⁾ 및 외화채권 가산금리²⁾ 추이



주: 1) 5년 만기 외평채 기준

2) 준정부-민간 달러화채권의 미국채 대비 가산금리 (Bloomberg Barclays EM USD Bond Index기준)

자료: Bloomberg(Barclays)